‘성난 농심’이 쌓인다

수매가 인상·직불금 규탄 촉구 전남 6개 시·군 야적시위 돌입

성난 ‘농심’(農心)이 28일 벼 야적 투쟁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생존권 투쟁에 들어갔다. 풍년이 들어도 생산비에 못 미치는 추곡 수매가 때문에 매년 시름에 잠겨야 하는 현실에다 직불금 파동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투쟁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농민들은 추곡 수매가 인상과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와 공무원 처벌 등을 요구하며 1, 2차 나락 야적 투쟁에 이어 전국농민대회까지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 농민회는 이날 나주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청사 앞에서 벼를 야적하고 시위를 벌였다.

나주시농민회가 이날 오전 나주시청 앞에 나락 40㎏ 들이 5천400포대를 야적한 것을 비롯한 ▲함평(2천포대) ▲강진(280 〃) ▲장흥(1천150 〃) ▲보성(1천 〃) ▲진도(260 〃) 등지에서 농민들이 야적시위를 벌였다.

농민회는 나락 1포대의 가격을 7만원으로 보장할 것과 쌀 직불금 부당 수급자 명단 공개와 벼 경영안정대책비 증액 등을 요구하는 등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농민들의 몫을 가로챘다”며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풍년이 들었어도 비료값, 기름값 인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반 토막 나 농민들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있다”며 “40㎏ 들이 벼 1포대 가격을 최소 7만원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농민회는 “이날 야적 시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영광과 구례 등 광주·전남 지역 15개 시·군 농민들이 야적 시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회는 다음달 10일에는 시·군별 2차 야적시위를 벌일 방침이며, 같은 달 25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농민대회에 합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무안 전남도청 앞에 나락 1천400여 포대를 야적하고 천막농성을 벌여온 농민회는 27일 농성을 풀었으며 도청 앞에 쌓인 나락도 내부 논의를 거쳐 치울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국 농민회가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야적시위에 들어간 28일 오전 나주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나주시청 앞에 40㎏들이 나락 5천여포대를 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 꼼짝마!

광주·전남 3주새 54명 적발

광주와 전남경찰이 최근 3주간(10월6일~27일)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명예훼손 사범 등 54명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방 외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사범 등 37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전남경찰은 15건에 17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포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공갈과 명예훼손이 각각 16건, 모욕이 1건 등이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모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광주에 있는 산하금융기관이 수십억대의 부정대출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A(36)씨를 입건했었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896명이었으며,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청소년 10명 중 6명 악플 피해 경험

광주YMCA 설문

광주지역 청소년 10명 중 6.3명은 악플(악성댓글) 피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YMCA 유해환경감시단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 중·고생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터넷 게임 중 악플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63.3%인 210명이 ‘예’라고 답했다. ‘아니오’라고 말한 응답자는 36.7%인 122명이었다.

‘악플을 보거나 당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36.7%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25.2%는 ‘나도 똑같이 달아준다’고 답해 61.9%가 불쾌해 하거나 맞대응 한 반면, ‘아무 생각 없거나 무시한다’는 학생은 33.8%에 그쳤다.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118명(35.5%)으로 같았고, 93명(28.0%)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 유해환경 노출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는 성인, 게임, 포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음란사이트 접속 경로로는 일부러 검색(27.7%), 검색 중 우연히(25.6%), 스팸 메일(16.0%), 지인들의 소개(10.8%) 등의 순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 성폭행범 법 적용 잘못

형량 절반으로 줄어 ‘논란’

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 조항을 잘못 적용, 최소 10년 이상 선고돼야 할 징역형이 5년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아파트에 침입,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의 누범가중 조항이 적용돼야 했지만 검사는 형법의 누범가중 조항으로 기소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의 누범가중은 법정 최고형만 2배로 늘어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강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도입된 특강법의 누범가중은 법정 최고형과 최소형을 모두 2배씩 늘리도록 돼있다.

즉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의 경우 형법의 누범가중을 적용하면 법원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끔 돼있지만, 특강법의 누범가중을 적용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다.

그러나 광주지검 측은 “특강법을 적용했더라도 판사의 작량감경 등에 의해 실제 선고되는 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룸 건물 30대 추락사

28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서구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정모(38)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건물 3층·4층의 가스 배관에서는 정씨의 지문과 족적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정씨가 여자 친구와 싸운 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회계장부 조작 탈세·비자금 조성

운수회사 전·현 대표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탈세한 후 뒤늦게 수정신고를 통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A운수회사 전 대표 최모(64)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버스운행 수익금 일부를 누락시킨 뒤 비자금을 조성한 현직 대표 백모(53)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A운수회사 대표로 있던 2004~2006년 사이 이익금 3억6천만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적자 운영이 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법인세를 탈루한 뒤 이 사실이 알려질 기미를 보이자 뒤늦게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3천760만원을 물게 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지역 운수업계에 종사하던 박모(72)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자 지난해 12월 수익금을 누락 기재하는 수법으로 1천만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00만원을 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모 지방신문 기자 강모(44)씨도 회사의 내부 비리를 알고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백씨에게서 200만원을 뜯은 정황이 드러나 강씨도 공갈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출 10대, 남자친구와 부모집 털어

쌍나팔

○…가출한 10대 소녀가 남자 친구 등과 함께 자신의 집을 털었으나 ‘딸이 의심간다’는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A(16)양과 A양의 남자친구 B(26)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 A양의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컴퓨터와 옷가지 등 시가 28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절도에 가담한 세 사람 모두 다 죄는 성립하지만 딸은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